



不良食品과 消費者心理

李 潤 子

<全國主婦教室中央會事務處長>

○ 消費者가 期待하는 食品

6.25動亂 당시 미군부대에서 「레이션」이 많이 흘러 나왔다. 건빵, 초코렛, 잼, 통조림 잼, 설탕, 커피, 코코아 등이 골고루 오밀조밀하게 담겨 있어서 代用食으로 逸品일 뿐만 아니라 이인들이 間食으로도 매우 훌륭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 때만해도 우리 나라의 식품공업계는 매우 落後되어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隔世之感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은 우리의 技術과 能力으로도 그 이상의 우수가공식품이 대량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려 먹을 수 있을만큼 크게 發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껏 이 「레이션」에 대한 매력은 버릴 수가 없다. 만약 전쟁터에서 敵에게 이 「레이션」을 주었을 경우,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면서도 완전한 包裝, 내용물과 사용법의 충실한 설명, 내용물의 정결함 등을 소비자에게 완전히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우리의 식품공업계도 눈부시게 成

長해서 라면, 과자류 등을 비롯하여 각종 간이 식품, 가공식품의 개발에 있어 매우 括弧할만 한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 「레이션」에서와 같이 어떤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한 심정이다.

세태의 복잡한 탓일까, 의류품이나 공산품 등 다른 생활 필수품에 서도 마찬가지겠으나, 不良食品에 대한 공포 같은 우리의 편안하고 긴장한 일상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不良食品에 대한 不安感

아침 저녁으로 드나드는 시장에서 주부들은 무엇을 사야할 것인가? 걱정들이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품이 인체에 직접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加工食品들이고 보면, 저것은 정말한 가공과정을 거쳤을까? 이것은 식품첨가물이 남용된 것이 아닐까? 發癌의 원인이 된다는 有害色素를 쓴것은 아닌가? 등등의 의구심이 꼬리를 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살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결론일 따름이다.

먹을 것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가운데 하나이다.

식품이란 인간생명유지의 제 1차적 요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없는 식품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급하게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년동안 主婦教室에 설치된 소비자보호센터의 不良商品신고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는 不良食品의 「정글」속에서 사는 듯한 불안감을 금할 수 없다.

다음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73년 도의 불

량상품신고총계는 313건으로 이중 약40%에 해당하는 125건이 식품이었으나 금년 도는 11월 30일 현재까지 총 124건으로 전체의 22%에 해당되어 작년에 비해 고발건수가 많이 저하됨은 식품공업계에 큰 혁신이 아닐수 없으며 그간 식품공업에 관여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작년보다는 금년, 금년보다는 내년으로 계속 좋은 성과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기대한다.

연도별	73년도	74년 11월 30일 현재	합 계
식품	125	27	152
의류	51	16	67
공산품	82	42	124
의약품	4	13	17
부당요금	30	6	36
불량서비스	21	20	41
합 계	313	124	437

○ 不良食品根絶을 위한 努力

지금까지 불량식품의 문제가 크게 논의될 때마다 악덕기업인들의 反社會的 行爲를 타하고, 행정당국의 감독 불충분을 타하고, 소비자들의 무방비성을 타하여 왔다.

물론 이 3자의 합수 관계 여하에 따라 불량식품은 받을 못 붙이게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다.

우리 나라 식품공업계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이 분야 기업인들의 식품연구개발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행정당국의 산업육성을 위한 시책, 그리고 소비자들의 뒷받침이 그 성장의 요건이라고 생각할때, 소비자의 입장에서선 불량품 근절의 실마리가 우선적으로 식품공업계에서 해결 되어 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20세기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소비자 보호 운동」 역시 소비자의 뒷받침으로 성장한 기업체가 소비자를 먼저 배신하는 행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공업계는 이것이 몇몇 악덕상인이나 군소업체의 농간이라고 할지언정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피해가 도사리고 있음을 재각성하고, 업계의 자체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야할 것이다.

6.25당시의 「레이션」에서 느끼던 소비자의 그 심정을 오늘의 현란한 가공식품들에서 재발견될수 있도록 소비자와 업계사이에 믿음의 架橋를 인내성 있게 놓아 나가야할 것이다.

量보다는 質을, 그리고 業體의 이익보다는 消費者의 보건위생을 선행조건으로 기업운동을 더욱 다져나가는 건전한 기업풍토의 助成으로 악덕기업인들이 자연도태되는 날이 하루속히 올때에 우리에게는 소비자보호운동이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은 식품공업계의 자체정화와 결속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휘몰아치는 자원전쟁의 여파가 우리 나라의 산업계에도 범상치 않은 불황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食糧難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의 식품공업계가 계속 의연한 자세로 소비자의 애호를 받으며 거듭 성장하기를 빌면서 받을 수 있는 식품생산으로 우리의 식생활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